

발행주최	편집장	인사부장	민중박사	법률위원장	친필위원
김진	김진	김진	김진	김진	김진

과 내 편: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 (☎267-8577)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 (☎41-4132)
인쇄인 김영

선학과

승려-일반분리 모집에 반발

학생회 "증원-장학 확대등 합리적 해결" 주장

학교당국이 92학년도 선학과 신입생모집에 승려, 일반학생을 5대5(모집인원 20명에 각 10명씩)로 분리 모집키로 함으로써 이의 찬반을 둘러싸고 선학과내에서 이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선학과는 제105회 조계종중앙총회에서 중립대학으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원 승려선발결의가 있음에 학교당국이 이를 반영, 분리모집케 된 것이다.

한편 분리모집이 발표되자 선학과학생회는 지난 7일 오후

2시 본관(C205)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승려학생들과 이견을 보여 해결점을 찾지 못한채 이번 문제를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승려, 일반학생으로 구성된 임시대책위(위원장 이오석·선학3)를 합의하는 데 그쳤다.

이번 문제에 대해 이오석학생회장은 "분리모집문제도 학과내 승려, 일반학생간 이질화를 심화시켜서는 안된다"며 "학년도총회를 진행시켜 과중인, 장학해택확대등 합리적인 선에서 이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분리모집에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학교당국의 주장에 대해 "과교수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는 속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말하긴 했지만 분리모집이 일반적 합의를 본 입장이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선학과는 총87명에 일반학생이 61명, 승려학생이 26명으로 나뉘져 있다. 선학과는 올해 입시에서도 추천서문제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번 파문의 근원인 중앙총회결정 이후 조계종총무원측은 5대5분리모집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이에 따른 일반학생들의 이견을 중화하기 위해 선학과 학생 전원에게 별도의 규정을 마련,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학과 학생들은 장학금지급이 분리모집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입시요강에 장학해택이 공시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총무원측 조건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번 선학과 분리모집논란은 학교당국이 선학과 학생들과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하는데 그 문제가 시초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승려, 일반학생들이 혼재돼 있

는 선학과 뿐만 아니라 불교대내에까지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학과와 합리적인 강구책 모색이 시급하다는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이들의 일반적 의견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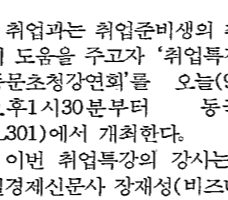
이때까지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학과와 합리적인 강구책 모색이 시급하다는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이들의 일반적 의견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때까지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학과와 합리적인 강구책 모색이 시급하다는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이들의 일반적 의견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학교당국은 지난 1일자로 서울 캠퍼스 학생처장에 조병찬(농업경제학·사진) 교수를 비

취업특강 - 동문초청 강연회



취업특강 강연회

취업특강 강연회



추계농활... 대중적 참여 과제로

추계농활이 제23대 총학 연대사업부 농민분과와 재전농민회 주최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3박4일간 충북 제천일원에서 실시됐다.

서울캠퍼스 불교대, 문과대, 농과대 등 3개단체를 비롯 동아리 소속 동국문화회 등 총1백여명이 참가한 이번 농활팀은 7개반으로 분반되어 각마을에 들어가 벼베기, 고추따기, 약초캐기 등의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번 농활은 학내에서 분위기가 활짝 되지는 않아 각단체별로 참가인원이 예년의 추계농활에 비해 감소했으며 준비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편 추계농활의 마지막날인 지난 6일 본교 농활팀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제천역광장에서 추계농활 보고대회를 통해 '미국의 경제침략반대 다짐대회'를 가진후 역에서 제천버스터미널까지 가두선전전을 벌였다.

임기만료 이사 선출 오는10일 재단이사회 열려

제112회 재단이사회(이사장=오복원)가 이사선출을 주관인으로 내일(10일) 오전11시 정충동3계 타워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재단이사회는 오복원이 이사장, 민병천총장등 이사 9명이 오는 11월22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이사회 구성을 위한 임원선출을 안건으로 개최된다.

임원의 선출방법은 재단정관 제24조2항에 근거 '이사정원 13인중 9인은 조계종계승승려로 하고 그 역은 이교도가 아

는 조계종계승승려로 하고 그 역은 이교도가 아

는 조계종계승승려로 하고 그 역은 이교도가 아

는 조계종계승승려로 하고 그 역은 이교도가 아

단과대 선거일정 확정 오는 11월6일까지 투표 마쳐

92년도 단과대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일정이 단과대별 상황에 따라 오늘(9일) 확정된다.

이에 따라 단과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8일)구성돼 오늘(9일) 선거일정을 확정한다.

총대의원회는 지난26일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단과대 선거일정을 조정했는데 △17일=동문대(한양대) △21일=공과대학 △23일~30일=유세 및 공청회 △31일~11월6일=투표 등이다.

한편 단과대 선거위는 총대 선거일정안 내에서 유세 및 투표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단과대선거는 오는 11월6일까지 마쳐야 한다.

보수

유형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데 가치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현대는 '악의 유행시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가치의 다원화가 되고는 결과로 시비선악의 판단이 기준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역사는 악(惡)을 자각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 할 정도로 악의 문제는 인간성 존엄에 근거하고 있음을 본다.

악의 문제는 인도교에서부터 불교사상을 통해서 일관해서 인간사유의 증해를 형성해왔다. 그리고 악의 문제는 인간사유의 심층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악에 대한 문제의 깊이는 아주 근원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선행을 하라는 가르침과 병행하여 '선

라, '선·악에 오염되지 말라'는 가르침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지 않다. 왜? 이런 모순된 가르침이 있는지는 질문일 것이다. 그러나 불교입장에서 본다면 어디에도 집착되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 행의 스스로가 선에 합치하고 대립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홀사 자동 차운전을 배울 때 처음에는 아주 어색하고 어려움을 의식하여 한가지, 한동작이 조심스러우나 숙달되면 운전하는 사람과 차가 일치되어 안락하고 쾌적하게 달리면서 도 규칙을 위반하는 일이 없게 된다. 여기서 대승불교의 공관(空觀)을 느꼈다.

金知見

한편 취업과 직원 이창희씨는 "현재 입사원서접수를 받고 있지만 성적·추천서에만 급급해 자기소개서작성, 심리검사가 소홀한 학생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번 특강이 이러한 취업준비생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수회 대의원회 서울·경주 합동으로 교수회는 서울·경주 합동대의원회를 교수회규정 개정주안으로 오는 12월 오후2시 서울캠퍼스 교수회사무실에서

한편 취업과 직원 이창희씨는 "현재 입사원서접수를 받고 있지만...

에베레스트 등반 오는 11일 발대식

본교 산악부는 오는 28일 떠나는 세계최고봉 에베레스트산(8,848m) 등정에 앞서 오는 11일 발대식을 가졌다.

(관련기사 7면)

이날 발대식에서는 이인정(한국대학신문편집장·46세) 동문을 비롯한 동국 산악회 OB회원들과 산악부 대원들이 참석해 등반 추진 경과보고등을 통해 이후 일정에 대한 결의를 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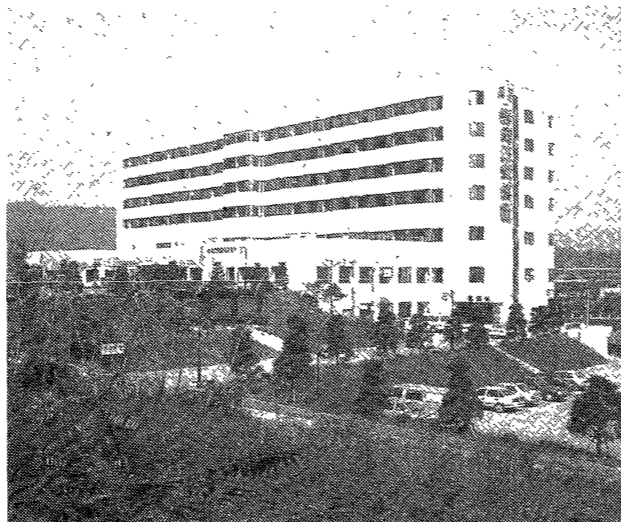
권덕룡(체교87졸·29세) 동문이 지난 9월30일 불가리아 바르나스스포츠센터에서 벌어진 91세계테슬링선수권대회 그레코로만형 48kg급에서 한국대표로 그레코로만형 사상최초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동국대학교 전화번호가 10월14일 0시를 기해 DID방식으로 바뀝니다
안내전화 260-3114번

동국대학교 의료원은 밝고 건강한 사회를 추구합니다.

동국대학교 부속 경주병원이 개원됩니다.

10월 22일
트디이 개원



학교법인 동국학원이 경주지역에 개원하는 부속병원인 지하 1층, 지상 7층에 연건평 6,000여평의 메디트 시설과 최신의료기기 및 우수한 의료진을 갖춘 종합의료기관입니다.

동국대학교 부속경주병원은 기존의 포항병원, 경주한방병원, 동국한방병원과 함께 양·한방 종합의료시스템으로 질병의 정확한 진단 및 효과적인 치료로 질병없는 이상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동국대학교 부속경주병원은 자비사상에 입각하여 봉사과 친절로 환자의 편의와 조속한 쾌유에 전념하면서 끊임없는 연구와 교육을 통한 진료의 질적향상으로 지역주민 보건을 책임지는 참된 대학병원이 되고자 합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DONGGUK UNIVERSITY MEDICAL CENTER

주 소: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54-1
대표전화: 748-9300, 응급실: 748-9301

사설

한글날에 즈음하여

어린아, 성탄절등에 밀려 올해부터 공휴일에서까지 제외된 5백 45살 먹은 한글날을 맞는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한글에 대한 정부의 소홀한 대접을 지적하기에 앞서 우리주위에 만연해 있는 외래어와 신화나 일제잔재 담습태도는 우리 말과 글의 현주소를 가늠해 주고 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5백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글이 제자리를 못찾는것은 최고의 민족유산을 올바르게 지켜나가는 주체적 노력의 부족일 것이다.

또 과거 일본제국주의 침략사 언어말살정책에 맞서 조선어학회를 조직하고 우리말 지키기에 목숨까지 바쳤던 조상들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면 우리 세대의 나태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 말과 글의 문제점은 국어교육 문제에서 거리가만큼 어문학까지 그 해결기사가 산재해 있다.

먼저 국어교육, 혹은 언어교육에 대한 단견이 가져오는 과오를 들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더라도 하듯 며칠전 발표된 초중등교과과정 개정 시안에서는 초등학교의 영어필수화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2학년 대를 내다본다는 국어교육의 한 단면을 보여 주었다. 더욱이 국어 교육이 대학입시 출제 유형에 맞춰짐으로써 국어교육의 결과 양을 저하시키는 데 한 몫 거들고 있다.

둘째, 국어교육학의 국어교육학계가 '한글전용'과 '국한문혼용론'으로 양분돼 약 반세기동안 자기 주장만으로 일관된 우리말 연구를 해왔다는 사실이다. 국어학계가 이처럼 극단적 명분론에 빠져 있던 틈을 타 국적조차 불분명한 언어가 판을 쳐 언어정책의 방향을 잃고 더욱 해마다 있다.

셋째는 사회적 배경으로 8·15해방이후 한국전쟁과 급격한 경제 개발로 일제잔재 청산과 우리말 체계를 재정리하기도 전에 외래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무엇 말과 글은 그 민족이 살아온 삶의 내적, 외적 모습이 투영 되어 형성된 것이며 그 결실을 문화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고도로 발달된 말과 글이 없이 민족민영을 이룬 예는 없다.

이제 우리는 말과글의 운운에 있어 일관된 언어정책과, 민족적 당면과제인 남북한 언어통일을 제기한다.

이승만정권의 맞춤법 간소화에서부터 89년 개정맞춤법통일안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언어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언어라는 것은 여러태도를 거처면서 뿌리내리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불매 박상공론으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정치인들의 행정권위와 관료주의는 결코 복식할 수 없다.

한나라의 언어정책은 사회·경제정책과는 달리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특히나 우리언어는 우리민족만의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비로 47년의 남북분단이 가져온 남북언어의 단절이 그것이다. 언어의 통일은 곧 문화와 정치의 통일이다. 요즘 외국에서 남북언어학자들이 만나면서 남북통일언어학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선 맞춤법통일과 사전공통편찬작업을 진행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직도 학교교과에 남북한 학자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제 정치적 제약을 풀고 남북언어교류에 충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비록 조라하게 맞이하는 한글날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막중하다.

당당한 우리 말과 글의 문제점을 적극 모색하고 남북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은 21세기 한민족문화를 꽃피우는데 가장 근간임을 잊지 말고 우리말 사랑하기에 구체적 실천들을 내야겠다.

시사 논단



김강녕 (인천대 정의과교수)

지난 9월28일 발표된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의 '미국의 단거리핵 (전술핵)철수-폐기선언'은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많은 호응과 논쟁, 그리고 미묘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 선언은 주로 전통적으로 많은 미-소핵무기가 전전배치되어온 지역인 유럽, 특히 소련을 겨냥하는 미-소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배경 하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반도의 핵문제 즉 주한미군 의 핵철수와 북한의 핵개발억제문제 등과도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부시 전술핵철수-폐기

핵무기 감축선언의 의미를 생각한다

선언의 의미와 배경, 한반도에 미치게 될 파장, 그리고 우리의 대응노력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부시 선언의 의미와 배경

부시 미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한 핵전력 감축 선언은 50년대초 핵무기경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획기적인 미국의 핵전력감축계획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시의

명선거를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수의 국가들은 이 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미국 핵전력의 양적감축과 질적향상 의도를 의식하여 이번 핵감축조치의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을 표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즉 '핵무기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핵으로 인한 긴장과 불안을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한반도에 미치게 될 파장

부시 미대통령의 '전술핵무기

핵감축경쟁 돌입...세계평화 이룩될 것인가

이번 선언의 제안은 미국보유 저장 및 해상발사 단거리핵 미사일의 일방적 폐기선언, 마-소의 모든 단거리핵미사일(제, 미국의 해외배치 잠함 및 전함장착 크루즈핵미사일의 미국내이동, 이 동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제한제, 미국전략핵무기의 24시간경계태세해제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전술핵을 포기하자 하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전술핵무기의 전략적 가치

철수-폐기 선언'은 평가가 어떠한 간에 한반도의 핵문제제언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해주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술핵보유여부와 이와 관련된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정책, 핵사찰을 둘러싼 북한핵개발문제 등 한반도에 빛이 보이고 있는 민감한 여러 핵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핵철수발표후에도 한국에 대한 공중 핵우산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방위에는 영향이 없

소중한 문화유산인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하자

무분별한 아래아(·)자는 '한글맞춤법'에 대한 범법

이른바 '아래 아자인' '·'은 훈민정음의 중성 11자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자로서 제자(制字)되었고, 비록 지금 '아래 아자'라 불리지만, '·'자와 그 소리가 같아 '아래 아자'라 할 것도 없다. 이는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와 '아'의 대립으로 나타나는 구별됨으로써 알 수 있다.

하다(多·大):후다(爲), 갈다(耕):갈다(賁), 말(마):말(馬), 매(買):미(買).

규격봉투 사용으로 신속한 송달을

최근 인구의 증가와 산업경제의 발달로 국민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 되어 이에 따라 우편번호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편물량의 증가와 서 비스수준의 향상을 위해 우편작업의 기계화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우편작업의 기계화를 위해 우편물을 규격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우편작업기계는 규격 우편물에 알맞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우편물의 발송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규격봉투요건을 지켜야 기해와 처리가 가능하다. 첫째 봉투의 가로는 최소 140mm, 최대 235mm이며, 세로는 최소 90mm, 최대 120mm이며, 둘째 봉투의 두께는 최대 5mm이다. 셋째 봉투의 지질은 70g/㎡ 이상이며, 넷째 봉투의 색상은 흰색 또는 연한색이어야 하며, 다섯째 우표는 반드시 지정된 위치

최세화 (사법대 국과교수)

열린글터

여러분의 생각을 동약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본사 여론매체부는 동대신문의 모든 독자들을 위한 공간을 항상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것들을 2백자정도로 3~5대 정도로 부담없이 적어서 가져 오십시오. 글을 못쓰신 다우요? 그럼 만화나 사진도 좋습니다.

언버리고 좁는 주인의식 필요

대학의 교정이라고 하면 누구나 잘 가꾸어진 잔디와 그 주변에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학의 교정은 형편없이 지저분한 것이 사실이다.

학교에서 지저분한 곳을 봤다면 처음이 라스베가스 쪽이다. 대학의 정원은 학생들에게 쉼터였던 곳이 언젠가부터 언젠가 언젠가 간 학생들이 버리고 간쑤지, 장물, 담배꽂지, 신, 술병들 때문에 썩어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어디 거기 뿐이겠는가.

대차보다 현수막도 그렇다. 지정 설치정소가 있을법한 데도 불구하고

맘흔리면서 농촌현실 깨달아

가을에 누렇게 무르익어가는 우리의 농촌은 그 황금빛처럼 아름답지만은 않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식량을 생산하면서도 수입개발로 농산물이 원가에 팔려 농민들은 가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은 농약에 중독된 농민이 돈이 없었기 때문은 농민이 죽어가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소외당하고 있는 농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91년 추계농일이었으며 또 대략 4년동안 나의 농촌봉사 활동이었다.

농민, 학생이 하나되어 서로 돕고 위해주며 맘 흔리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배우며 농민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떠한 직업보다도

東國漫評

송태영

신시어 / 나는 전생애 무슨 죄가 그리 많아 몸뚱이는 따로 들고 꼬리인 핵폭탄을 달고 있어야 하오...혹혹

—어느 호랑이의 울부짖음—

목 먹골 동약! 광장

■염미(사학 90)야 / 너의 스무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맹실상부한 생일이 되었으니 더욱 힘차게 열심히 생활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율가올엔 아따다운 사랑도 하거라... —독식

■자판기 손실금 반원이 있습니다. —자춘

일시:10월 15·16일 정오부터 오후2시까지

장소:도서관 앞

※꼭 찾아 가세요.

—학생복지위원회

■주희씨의 낭군 현준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현준아, 빨리 합쳐서 제수 써 고생 좀 그만 시켜라.

—친구들

■독문연극을 준비중인 친구들에게 그 뜨거웠던 여름방학과 개강주의 이수선함 속에서도 영국의 연극에 몰두했던 친구들 연결 수고했습니다. 지난 노력을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가슴 뿌듯할 것입니다.

와 / 모두 연극구경하러 가자.

—밍맹맹을 제일 잘하는 녀석

■장준(법91)야, 부제 칭찬하자. —우영87

■남희(사학91)의 생일(11일)을 축하한다.

—일곤

■우리 그리고... 그림의 영

원한 탕이형인 황승욱 선배님께서 10월8일 입대하셨습니다. 몸 건강하시길 빌며

—재훈이, 인형이가

■중환자, 생일 축하한다. 하는 일 모두 절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영진야, 생일 축하한다. 언제나 우리들에서 땀끼치는 영진야 되길...

—D. U. B. S. 3371

■영진이야, 해진이, 승연이 모두 모두 행복하길 바래. 언제나 열심히 사는 '우리'가 되자구나.

—Ann. 와내가

■D-9 환진오빠가 17일 군대를 간대요.

5학년 반장자리 퇴임하고 가려던 서운하시겠지만 보내는 저희 마음도 정말 울고싶어요. 부디 건강하게, 친구로써서 한국 어저께가 되세요.

—환진오빠를 사랑하는 DUSSA

■대신고등학교 25기 최은호 선배님의 박사학위 취득을 동약의 일백 왕희인들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 동대 대신고 동문회

■드디어 우리 임기가 되었습다.

사랑하는 우리 동기(태호, 성훈, 선영, 현이, 복희)모두

멋진 Action보여주고 멋진 우정 나누자.

—백상 응원단 15기 단

■구동도가 기공술 초점 강연회

장사:천기누설 저자 안중선

일시:10월17일 오후5시

장소:학림관 소강당

내용: 하 나 / 돌 // 힘 // // 이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주최:천기누설 구동도가 전국대학생연합 구도회

※중앙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형근, 상균, 대용, 재기, 영진, 재준, 중상... 그리고 08년 11월의 MT를 다녀온 정훈, 모두 어려움을 이기고 돌아온 낙산 MT. 동기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D.U.B.S. 3371 일갈하는 아해가

■10일 오후3시 불상사에서 '전통문화재전'이 열립니다. 학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대·공대 풍물패

■몇달 남지 않았다. 내가 초조해했던 '겨울'. 그 겨울을 내 친구들 동생 그리고 후배들도 초조해하며 하얗게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 건강할 희망을...

■漢文 고전 강독회원모집 우리문화와 동양문화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의식의 밑바닥이 다져지고 있는, 전조율이 남겨 놓은 정신문화유산을 더듬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불교철학 및 인문과학연구의 전통이 숨쉬는 곳의 전통을 잇고 싶지 않으신가요?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대학원생도 OK)

연락처(집수처):이찬훈교수 연구실, 서울대학교 연구실, 사학과 학회실

※10일부터 강독 시작

—동국대학교 춘천 강독회 추진위원회

■농어촌 연구부 여러분! 인화가 군대 간다고 버리를 꺾으시오. 송별회 좀 해 주세요. 모두 모두 나와서 인호를 보내 버립시다.

■노동해방 선포 / 전대협 출범식 '선포'공연에 온밤을 지새우며 받았던 감동은 잊지못해 '민중문화운동원'에서 다시금 생생한 감동을 체험합니다. 기나긴 밤과 햇빛 쬐는 밤에 비집감을 흘리면 서 준비한 '선포'를 날려 보냅니다.

한 이 가을 여러분에게 공헌합니다. 오는 10월 10일(토)에서 대동동장(우천시 체육관)에서 여러분의 노동해방을 향한 열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악바리 승현이가

■국어국문 산하 문제 / 귀여운 91학번 아해들의 토론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5시30분 깨끗하고 산뜻하게 정리의 학회실에서 열립니다.

불참시 가혹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만 참석하면 가득한 포만감을 만끽할 수 있을 걸!

—국문학과 명승이가

■지금 이순간 농민과 함께 바라보아야 할 해도 풍성한 들판이 가득한 가을입니다. 결실의 보람을 함께한 온밤을 학우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추계농일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총학생회 농촌추진위원회로 연락바랍니다.

—가슴뛰는 권승이가

■한번 모일까요? 그게 좋겠

■강릉 명문고—오는11월 오후 6시 도서관 휴게실에 한 번 모여 진지한 대화 좀 가집니다.

교육실습 신청서 접수

'92학년도 교육실습 예정자의 교육실습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함.

1. 대상: 사법대학 및 교과과정 이수자('92학년도 4학년 진급예정자)
2. 자격: 가. 교과과정 이수자 명단이 교육부에 제출된 자 나. 교과 및 전공과목성적이 각각 평균 80점 이상 가능한 자
3. 접수기간: '91. 10. 15 ~ '91. 10. 18(4일간)
4. 교부 및 접수처: 사법대학 및 이부대학 교과과

사 법 대 학 장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접수

'91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함.

1. 대상: '91학년도 전기졸업 예정자 중 사법대학 및 교과과정 이수자
2. 자격: 가. 교과과정 이수자 명단이 교육부에 제출된 자 나. 교과 및 전공과목 성적이 각각 평균 80점 이상 가능한 자
3. 접수기간: '91. 10. 10 ~ '91. 10. 14
4. 제출서류: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 1부(소정양식)
5. 교부 및 접수처: 사법대학 및 이부대학 교과과

※유의사항: 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사 법 대 학 장

온 방 골

■노동해방 선포 / 전대협 출범식 '선포'공연에 온밤을 지새우며 받았던 감동은 잊지못해 '민중문화운동원'에서 다시금 생생한 감동을 체험합니다. 기나긴 밤과 햇빛 쬐는 밤에 비집감을 흘리면 서 준비한 '선포'를 날려 보냅니다.

기원시리즈 네번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북한의 외교정책

주체노선 견지하며 강대국 압력 유연하게 대처

결프전 이후 부쩍 강화된 미국의 남북한 유엔 분리 가입 압력과 지난해 부시 미국 대통령의 단거리 핵실험을 철폐하기 위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에 상응하는 코르바초프 대통령의 단거리 핵 실험 및 기타 핵에 관련한 파격적인 감축 조치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에 대응하는 북한의 외교정책의 흐름을 유엔가입과 핵사찰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왜 유연한 외교를 전면에 내세우는가

이제나사의 외교정책이든 국제정세의 변화에 끊임없이 조응하면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기본이다. 물론 북한도 예외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식 사회주의'를 외교정책에도 그대로 반영해왔던 북한이 왜 외교정책을 적극적·주동적으로 변화시키려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지름길일 것이다.

북한이 자신의 정책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변화된 동북아시아의 세력관계에서 주어졌다. 80년대 중반까지는 유지되던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이 적어도 89년 봄 이후 2년간, 동북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범지구적 변화의 물결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변화의 주된원인은 소련의 현저한 퇴조와 미국의 힘의 정책 강화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결프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같은 변화와 관련된 부분 중 핵심으로 동북아정세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세력관계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표면화된 것은 90년 10월 전격적으로 단행된 한·소 수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소 수교는 소련이 자신의 경제적 곤란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중단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한편 소련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이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 북한이 상당한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무산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반대, 주한 미군의 반영구적 주둔 필요성 역설, 전사 주둔군 지원협정의 체결전개, 120일간의 핵전쟁시나리오 준비, 그리고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 북한에 대한 강제핵사찰위협 등 노골적인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북한에 대한 압박의고에 어느정도 가세하고 있다. 기존 남북한의 대화장조임에서 남한의 유엔 단독가입 저지로 선의했고 미국의 압력에 따라 핵사찰 문제를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의 맹방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양국간의 입장을 일치시켜 왔다. 그러나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남한과의 교류 및 문화교류의 확대 등은 북한으로 볼때 남한의 유엔 단

기원하는 세계의 한반도이세종일



◇유엔무대에 선 연형록 북한 총리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으로 한반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유엔총회에서 연형록 총리가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이다.

독 가입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

북한 외교정책 변화의 또하나의 축은 국내문제, 구체적으로 경제문제에 있다.

올해 김일성 주석은 신년사를 통해 "인민경제의 선봉부분을 확고히

동북아 세력 변화와 국내경제가 변화 요인 유엔가입 - 핵사찰 조건부수용은 공세적 측면가져

앞세우고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트래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사회주의적 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일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 즉 농업과 연료 및 원료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흉작, 그리고 원유에 대한 소련의 경제결재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경제문제는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을 가속화시키는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유엔 가입과 핵사찰의 조건부 수용, 북한의 고육지책인가?

앞에서 북한의외교정책의 변화 요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구

글쓰는 차례

1. 국제정세개괄
2. 변화하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
3.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대응
4. 북한의 현실노선
5. 남한의 흡수통일노선과 미국
6.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7. 현실적인 통일방안과 그 전제조건
8. 총괄

과가 조래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연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그들 나름의 긍정적 측면을 또한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나 통일분위기 조성에 유리한 측면, 즉 현실적으로 유엔에 가입하는 자체만 해도 유엔사령부의 해체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는 공세적 측면을 갖는 것이다.

핵사찰 조건부 수용, 외교정책의 공세적 측면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유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군사비 절감과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가장 중시하고 이를 전진시키기 위해 그동안 결집들로 작용해 왔던 핵사찰 문제를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안전협정체결결정은 미국이 북한위협론의 강화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각시켰지만 북한으로 볼때 결코 수세적인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평화나 비

동북아 세력 변화와 국내경제가 변화 요인 유엔가입 - 핵사찰 조건부수용은 공세적 측면가져

핵지대화를 줄곧 주장해온 쪽은 북한이고 결국 그 부담은 미국에게 되돌아가고 있어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김일성 총리외교장은 지난 4일, 부시 미대통령의 단거리 핵무기 철폐를 위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에 상응하는 코르바초프 대통령의 단거리 핵 실험 및 기타 핵에 관련한 파격적인 감축 조치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에 대응하는 북한의 외교정책의 흐름을 유엔가입과 핵사찰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왜 유연한 외교를 전면에 내세우는가

이제나사의 외교정책이든 국제정세의 변화에 끊임없이 조응하면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기본이다. 물론 북한도 예외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식 사회주의'를 외교정책에도 그대로 반영해왔던 북한이 왜 외교정책을 적극적·주동적으로 변화시키려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지름길일 것이다.

북한이 자신의 정책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변화된 동북아시아의 세력관계에서 주어졌다

80년대 중반까지는 유지되던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이 적어도 89년 봄 이후 2년간, 동북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범지구적 변화의 물결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변화의 주된원인은 소련의 현저한 퇴조와 미국의 힘의 정책 강화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결프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같은 변화와 관련된 부분 중 핵심으로 동북아정세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세력관계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표면화된 것은 90년 10월 전격적으로 단행된 한·소 수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소 수교는 소련이 자신의 경제적 곤란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중단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한편 소련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이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 북한이 상당한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무산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반대, 주한 미군의 반영구적 주둔 필요성 역설, 전사 주둔군 지원협정의 체결전개, 120일간의 핵전쟁시나리오 준비, 그리고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 북한에 대한 강제핵사찰위협 등 노골적인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북한에 대한 압박의고에 어느정도 가세하고 있다

기존 남북한의 대화장조임에서 남한의 유엔 단독가입 저지로 선의했고 미국의 압력에 따라 핵사찰 문제를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의 맹방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양국간의 입장을 일치시켜 왔다

그러나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남한과의 교류 및 문화교류의 확대 등은 북한으로 볼때 남한의 유엔 단

초·중등 교과과정 개정안의 문제점

고교 국사과목의 사회와 통합, 중학교 한문교과의 국어와 흡수, 공통필수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6차 초·중등 교과과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발표되자 한글학회, 역사학회 등 학계,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의회에 의해 교과과정 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한명회·본교 교육학과 교수)가 연구한 이번 개정안은 △교육목표의 교과과정 편제결정권의 사도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위임 △공통필수 축소로 수업부담 감소 △고등학생의 수업능력에 따른 필수과목(예 수학A, IB) 신설 등의 내용으로 교육계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고교 국사과목의 사회와 통합 △중학교 한문교과의 국어와 흡수 △국민윤리교육 강화와 국

개정배경에 '교육부음모설' 의혹

"국사교육축소는 민족말살정책"

사선배정 등은, 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육계, 학계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반발움직임에 대해 한명회 교수는 "각 학계의 주장을 모두 수렴한다면 학생의 수업부담은 2배 가 될 것"이라며 "자기영도 학생주 의에서 비롯된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국사과목통합'에 대해 사학과 이기동교수는 "세계 어 느곳도 자기역사를 도외시하는 나라라는 없으며 21세기를 준비하는 데 이제 거의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대해 아직은 강경한 입장이지 만 무한정 회피할수는 없을 것이 다. 북한과 일본의 수교교섭, 그리고 소련과 중국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등의 상황에서 미국인이

동일의지마저 의심케 하는 조치들이다. 북한정부의 입장은 지금이 남북연합의 관계로 접어드는 공존의 단계라고 판단, 정치·군사적 측면보다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여기는 외교·경제적 측면에서 관계개 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통일정책의 기초가 앞으로 북한에 대한 개방화의 전략을 기초로 공격적인 모습을 띠 것임을 말해준다.

반면에 북한은 당국과의 긴장완화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에서는 다양한 교류를 포함하여, 당국과 민간부분을 통틀어 전체적으로는 통일 방안의 중심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정책변화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북한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한정부는 여전히 강성기조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5월 30일 통일원장관과 외무부장관의 국가보안법개정 불가, 평화협정체결논의 불가, 불가침선언수용 불가, 헌법 3조 발효조항 개정 불가등의 방침을 밝힌데 이어 외무부장관은 "당장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마저도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남한 정부의

그러나 남북한의 유엔가입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주지는 않으며, 서로 실체를 인정한다는 것만으로도 적대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유엔동시가입하에 서로 다른 단계를 지니는 한 경쟁의식과 적대감이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최근 북한의 침략위협에 대한 적대적이지는 않으나, 북한에 대한 남한 체제의 우월성이란 또 다른 형태의 경쟁심리가 유도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달리말해서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의 의식이 성장하지 않는 한 두개의 국가에서 비롯되는 체제경쟁은 한반도 민중의 고통을 심화시키며 통일을 지연시킬 것이다.

따라서 현재 통일을 위한 실질한 과제는 민족문제 해결에 대한 민족 내부성원의 해결이라는 원칙 아래, 남북한의 불가침선언과 핵무기의 조속한 완전철폐,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평화군축등 시급한 평화 문제를 대중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제기해나간다면 민족대단결의 의식을 고취해가는 것이다.

김용 헌

(대학원 정치학과)

꿈과 도전

고려아연은 의욕적이고 패기에 찬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흔히 바둑을 "인생의 축소판, 모험과 인생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바둑판을 하나의 우주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집을 만들고 세력을 넓혀 가는 바둑은 인간들의 삶과 같습니다.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며, 지붕을 덮고 벽을 쌓은뒤 마무리하는 집만들기와 같이 바둑은 사람의 능력과 생각을 자유로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둑의 궁극적인 목적은 튼튼하고 넓은 집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한편 한편 정성을 다해 바둑을 두듯이 뚜렷한 인생관과 집념으로 고려아연에서 자신의 집을 만들어 보십시오. 모험과 인생, 그리고 꿈과 패기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할 수 있는 인재를 고려아연은 찾고 있습니다.

요원부서 및 응시자격

모집부서	응시자격
인문계(00명)	장학, 장학, 여문
이공계(00명)	공학, 화학, 화학기계, 전기, 전자

응시절차

1. 1차: 서류전형
 2. 2차: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함)
 ● 시험일시: 1991. 11. 3 (일)
 ● 시험과목: 영어, 적성검사

3. 3차: 면접전형(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함)

응시방법

가. 입사지원서(당사 소정양식) _____ 1부
 나. 대학원학번 성적증명서 _____ 1부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91. 10. 14 (일) ~ 10. 21 (일)
 나. 교부처

교부처	소재지	접洽번호
본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42 (영동빌딩)	(02) 547-8310
울산세련소	경남 울산광역시 남구 505	(0522) 38-2121
영동정밀	경기도 안산시 내동 491-3	(02) 868-7019
서원정밀	인천시 남구 우남동 1446-2	(032) 862-0527
부산정밀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649-5	(051) 243-5313

다. 접수처: 135-749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42번지
 총무부 인사과 ☎ 547-8310 (교통: 536, 537, 538)
 (우편접수도 가능함)

5. 기타

가. 모집대상회사: 덩샤오밍정밀공업(주), 서원정밀(주), 코리아네일(주)
 나.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바람.

「고려아연」은 17년전 빈약한 부존자원과 경제현실에서 풍요로운 삶과 밝은 미래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실업이념"과 인간중시의 "정영이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인재양성과 기술개발로 세계 10대 아연제련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고려아연」은 아연은 물론 금, 은, 동 및 고순도 정밀화학제품에 이르기까지 20여종의 주요·간산산업소재를 생산하여 신진한국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적인 비철금속제련전문회사입니다.

고려아연주식회사

자매회사 (주)영동 ● 영동정밀(주) ● 영동기계공업(주) ● 영동건설(주) ● 영동정밀공업(주) ● 서원정밀(주) ● 코리아네일(주) ● 영동트레이딩(주) ● 영동개발(주) ● (주)영동JAPAN ● 영동에너지리빙서비스(주) ● (주)영동 ● 무극콘크리트공업(주)

취업, 그 실태와 대책은...

대기업, 사람 뽑아놓고 형식적 공채공고

격중소지자, 전문직보유자를 원한다면 TOEIC시험이나 각종 자격증시험에 응시할 준비를 하거나 전문면접위원의 특별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별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에는 전공분야가 무엇인건에 상관없이 컴퓨터, 타자 등 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면역에 주력하면서 각종자격증의 취득이나 전문면접위원의 수료 등을 통해 '자격있는 여성인력'이 되어야. 그러나 취업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학교발전이 훌륭한 교수진의 확보, 우수한 학생의 선발, 완벽한 시설의 구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사회 진출률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은 고려한다면 이제 취업문제는 학교발전차원에서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할 사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당국에서는 우선 취업정보의 전산화 시스템을 완비하여 학생들에게 최신취업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취업대비강좌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4차)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취업의 일반정보, 회사정보, 인성·적성검사, 면접요령, 중요전공시험특강, 그리고 시사논문 및 상식대비강좌 등 취업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특강들을 체계화된 커리큘럼과 우수한 강사진 등을 통한 재도 개설해야 한다. 지금 현재도 각종 취업특강이 개설되고는 있지만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은 이유는 예산 및 담당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산만하고 강사진이 충실치 않으며 홍보까지 미흡하여 형식적인 '특강'에 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단과대학이나 학과는 대(對)기업종교와 학과연계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취업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취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취업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취업은 학생들에게는 대학생활을 마무리하고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고, 학교로서는 중장기발전과 직결되는 것이 되며, 동창회로서는 선후배간 사회적인 연계를 확대하는 일이 되는만큼 모두가 적극적으로 공동적인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홍승기
(경상대 무역학과 교수)

실시하고 있는 유순(정외) 학생회장의 말은 유순(정외) 학생회 대부분의 학생회에 되새겨볼 의미 면 던져준다.

대부분의 학생회가 2학기 개강 이후 특별한 사업계획없이 축제를 중점사업으로 두고 1년 학생회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관례적 사업구조를 보여왔다. 더욱이 예전의 경우를 보면 정확하고 올바른 학생회 1년 평가와 과학생들로부터 수렴된 단과대학의 사업의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 선거와 축제이후에 마련되지 않고 경허한 자기비판이 수행되지 못한채 1년 학생회사업이 마무리됐다는 '학생회 이월작업의 문제'도 지적된다.

"선거시작하면 학생회사업은 끝난거야"라고 말하는 88학번 어느 학우의 지적에서 아직도 임기를 두달남짓 남긴 학생회장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대변한다.

선거준비비로 활기찬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의외로 학교는 조용하다. 그동안 정세분석이나 집회야담 일변도였던 대자보도 축제 준비, 선거공고 알람표로 변화돼 '자금은 축제와 선거가 가장 큰 관심거리'라는 학생 대부분의 생각이 대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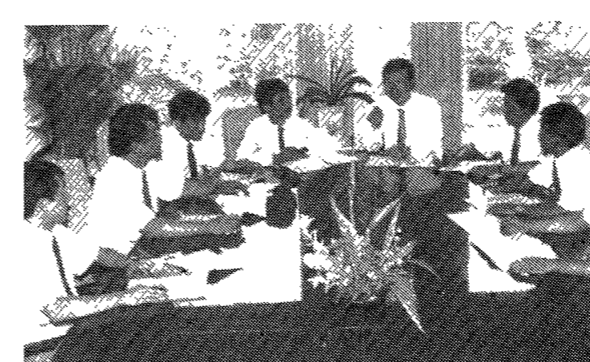
또한 선거준비비로 활기찬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의외로 학교는 조용하다. 그동안 정세분석이나 집회야담 일변도였던 대자보도 축제 준비, 선거공고 알람표로 변화돼 '자금은 축제와 선거가 가장 큰 관심거리'라는 학생 대부분의 생각이 대변한다.

선거준비비로 활기찬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의외로 학교는 조용하다. 그동안 정세분석이나 집회야담 일변도였던 대자보도 축제 준비, 선거공고 알람표로 변화돼 '자금은 축제와 선거가 가장 큰 관심거리'라는 학생 대부분의 생각이 대변한다.

선거준비비로 활기찬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의외로 학교는 조용하다. 그동안 정세분석이나 집회야담 일변도였던 대자보도 축제 준비, 선거공고 알람표로 변화돼 '자금은 축제와 선거가 가장 큰 관심거리'라는 학생 대부분의 생각이 대변한다.

선거준비비로 활기찬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의외로 학교는 조용하다. 그동안 정세분석이나 집회야담 일변도였던 대자보도 축제 준비, 선거공고 알람표로 변화돼 '자금은 축제와 선거가 가장 큰 관심거리'라는 학생 대부분의 생각이 대변한다.

선거준비비로 활기찬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의외로 학교는 조용하다. 그동안 정세분석이나 집회야담 일변도였던 대자보도 축제 준비, 선거공고 알람표로 변화돼 '자금은 축제와 선거가 가장 큰 관심거리'라는 학생 대부분의 생각이 대변한다.



◇명문대 이·공계 학생을 선발하는 인턴사원제가 활발히 도입되면서 인문계·사범계의 취업난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2> 취업의 사회적 문제

해 입사가 결정된 대졸예정자들은 대졸대기업공채일인 11월 3일에 최종면접이나 신체검사가 또는 예비소집을 실시함으로써 다른 기업에는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덧붙여 이들 대기업들은 인턴이나 특채를 위한 추천서를 서울소재 10여개 상위권대학과 지방소재 4~5개 대학에만 한정해서 보내고 있으며 학교별로 별도·경상대·공과대의 일부학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문과·비인기학과 졸업생들에게는 취업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비록 유행·건설업에 진출한 몇몇 중견기업들이 공채인원을 늘려 뽑을 예정이지만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을뿐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도 수출난·기능인력난·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대졸자취업난을 완화시키지는 못할 것 같다.

둘째, 지난해 1986년 이래 양적팽창을 계속해온 금융기관들도 신실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규채용규모를 줄이고 있다. 제2금융권인 기존 은행들은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대폭 줄였고 서울신협은행·리빙뱅크 등 새우치 등 20여개 기업들도 인턴사원제를 활용하여 상당수 인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삼성·선정그룹 등도 이미 추천·특채에 의해 많은 신입사원을 뽑아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대기업들은 인턴이나 특채를 통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더욱이 대부분의 금융기관 공채일이 대기업 공채일인 11월 3일과 겹쳐 이례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다.

셋째, 기업의 올 하반기 신규채용인원을 전공별로 보면 대체로 이공계출신은 늘려 뽑는 반면 인문계출신 채용은 줄어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공계출신은 인문계출신보다 취업상 유리한 점이 있는 하나 이공계내에서도 전기·전자·기계·조선 등 공학계학과와 이학계학과

학생-학교-동창회간 유기적연락 통한 정보입수

우수인력 확보위해 특채·인턴사원제 선호

이에 따라 여대생의 취업률은 매우 낮으며 실사 취업했다 하더라도 전공과 관련된 인턴이나 장외 부업수준이 높은 '좋은 직장'에 자리를 잡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몇몇 은행에서는 학사성적을 채용에 반영하고 전문대학 졸업자대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올 들어서는 채용과정에서 학과성적이나 필기시험성적보다도 인성검사, 적성검사, 면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학원출신자, 외국어능력자, 자격증소지자 등을 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채용경향은 우리사회의 민주화, 국제화, 전문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섯째, 최근들어 기업에서 대학에 추천의뢰를 할때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시위가 과격한 대학에 대해서는 추천서발송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서울소재 대학 중에서도 울퉁이 학내사태, 부정입학, 과점시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3~4개 대학에는 추천의뢰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업에 있어서의 몇가지 큰 흐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취업대상학생-학교-동창회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총체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비록 본교가 대기업들이 추천을 의뢰하는 서울지역의 상위 10개대학에는 포함되지만 다른 명문대학과 비교해보면 추천의 양과 질이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단과대학별·학과별 취업률의 격차가 크고 고교졸업인 여대생 취업난도 문제이러니와 △취업을 마련하고 있으며, '상설연합체'의 구성을 통한 전진검사 재검사의 가 분격화되고 있는 단계이다. 따라서 '상설연합체'의 강화는 이것의 건설을 위한 것이다.

'상설연합체'의 건설은 매우 분분하나, 상설연합체가 상층중앙조직의 강화를 통한 정치조직의 건설을 이루기 보다는 개교·계승의 각 대중조직체들의 밑으로부터의 추동에 의한 조직의 건설을 통해 모든 부문에 걸친 정치적·경제적 투쟁조직체가 되어야 함이 그 핵심이다. 즉 대중조직체들의 투쟁과는 일정한 차별성을 갖는 정치조직체로서의 '상설연합체'로 민주대연합의 결성을 재탄생시킬 수 있다.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모든 부문과 영역에서 지도할 수 있는 대중조직체로서의 상설연합체의 건설만이 통합야당을 견제하고 보수화의 거센 역류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지금 통합야당에 무엇을 바랄 때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야권통합이 민주당-민주당의 보수양당구조로 정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에 더욱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보수정치의 붕괴는 통합야당 자체에 바라기에는 그 자체의 속성이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견제는 민주당-민주운동의 질적 고양을 통한 민중적 견제만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박동진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원)

간에는 취업률차이가 극심하다. 한편 인문계의 경우에는 채용인원의 감소로 문과대·사범대 일부학과 출신의 취업난이 더욱 더 심화될 전망이다.

네째, 여대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여대생들의 취업의회는 해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여대생을 채용했을 경우, 격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고, 결혼과 함께 퇴직할 경우 회사측으로서는 손실이 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졸자 부급으로 대우해 주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대생의 취업률은 매우 낮으며 실사 취업했다 하더라도 전공과 관련된 인턴이나 장외 부업수준이 높은 '좋은 직장'에 자리를 잡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몇몇 은행에서는 학사성적을 채용에 반영하고 전문대학 졸업자대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올 들어서는 채용과정에서 학과성적이나 필기시험성적보다도 인성검사, 적성검사, 면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학원출신자, 외국어능력자, 자격증소지자 등을 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채용경향은 우리사회의 민주화, 국제화, 전문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섯째, 최근들어 기업에서 대학에 추천의뢰를 할때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시위가 과격한 대학에 대해서는 추천서발송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서울소재 대학 중에서도 울퉁이 학내사태, 부정입학, 과점시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3~4개 대학에는 추천의뢰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업에 있어서의 몇가지 큰 흐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취업대상학생-학교-동창회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총체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비록 본교가 대기업들이 추천을 의뢰하는 서울지역의 상위 10개대학에는 포함되지만 다른 명문대학과 비교해보면 추천의 양과 질이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단과대학별·학과별 취업률의 격차가 크고 고교졸업인 여대생 취업난도 문제이러니와 △취업을 마련하고 있으며, '상설연합체'의 구성을 통한 전진검사 재검사의 가 분격화되고 있는 단계이다. 따라서 '상설연합체'의 강화는 이것의 건설을 위한 것이다.

'상설연합체'의 건설은 매우 분분하나, 상설연합체가 상층중앙조직의 강화를 통한 정치조직의 건설을 이루기 보다는 개교·계승의 각 대중조직체들의 밑으로부터의 추동에 의한 조직의 건설을 통해 모든 부문에 걸친 정치적·경제적 투쟁조직체가 되어야 함이 그 핵심이다. 즉 대중조직체들의 투쟁과는 일정한 차별성을 갖는 정치조직체로서의 '상설연합체'로 민주대연합의 결성을 재탄생시킬 수 있다.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모든 부문과 영역에서 지도할 수 있는 대중조직체로서의 상설연합체의 건설만이 통합야당을 견제하고 보수화의 거센 역류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지금 통합야당에 무엇을 바랄 때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야권통합이 민주당-민주당의 보수양당구조로 정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에 더욱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보수정치의 붕괴는 통합야당 자체에 바라기에는 그 자체의 속성이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견제는 민주당-민주운동의 질적 고양을 통한 민중적 견제만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박동진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원)

◇야권통합과 상설연합체 건설

역사가 외치는 민중의 정치세력화

지난 9월 모든 저널리스트들은 야권통합을 매우 역사적인 사건으로 앞을 다투며 다루었다. 1990년 초에 민중당과 민주당의 보수연합으로 탄생한 민중당은 여소야대의 정국을 뒤엎고 다수의 의석을 만들어냈다. 여기에 6공정국의 엄청난 물리력이 가세되고, 야당은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열된 형태를 노정하면서 민주당의 일당지배를 가능하게 했다.

야권통합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앞으로의 선거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보수정치의 구도가 굳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일 수 있다. 야권통합은 그 내용상 신민당, 민주당, 개야의 통합이나 그 본질상 신민당과 민주당의 통합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또한 통합야당에서의 역할 역시 이들 두당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도 사실이다. 따라서 야권

통합의 핵심은 민중·민주운동의 새로운 활로의 모색이 아니라, 보수양당구조의 정착 가능성이 높아짐에 점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6월 민주화국민대행령 이후 오늘날 야당의 소위 민주부사들이 보여준 정치적 행태들은 보수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민주당은 민중당과 야합하여 선진적으로 보수적인 작태를 여실히 드러냈고, 신민당 또한 지난 5, 6월 투쟁 때 보수야당으로서의 자신들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야권통합은 지역당으로서의 야당 이미지를 쇄신하고 전국적 조직체로서의 새로운 정치세력을 창출해야 한다. 이는 민주당의 일당지배적이고 파행적인 정국운영에 새로 대응하여 일선적 정국 운영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이다. 사실 민주당 출범 이후 나타난 엄청난 물리적 폭력과 이태원토기공세는 국민들을 정치적 무관심 상태로 몰아갔으며, 연속적으로 터지는 공권력 남용과 정경유착의 거액 부정사건들은 국민들을 심리적인 아노미 상태로 몰아갔다.

야권통합은 그 자체로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이미지를 창출할 수 없다. 이는 앞서서도 제기했던 것과 같이 야권통합의 내용적 본질은 보수양당구조의 위협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통합이 그 본연의 이미지를 지니기 위해서는 민주대연합의 틀 속에서 민주당의 일당지배에 대응해야 한다. 즉 통합야당, 민중당, 민중·민주운동조직의 역사적 역력의 형성 속에서만 야권통합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정치적으로 세력화된 통합야당은 민중당과 5, 6월 투쟁의 성과인 '상설연합체'의 강화와 통합 야권통합을 위한 정치지형이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민중·민주운동세력과 함께 반민중당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야권통합의 진정한 의미이다.

92~93년 권력재편기의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민중·민주세력의 투쟁과 단결의 구심으로서 '상설연합체'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7전대회를 중심으로 한 10개 부문조직, 13개 지역조직으로 '상설연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공동강령서안'



신입사원이 아닌 새로운 동반자로서 만남시다

해마다 수없이 매출되는 대학 졸업생들이 진리와 학문탐구의 열정으로 뛰어난 회사생활이 이상과 기대에 결코 만족을 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성세대가 이끌어가는 선배들의 사고와 새롭게 시작하는 신입사원들의 사고가 서로 다르고 괴리를 빚기 때문이며, 끝내 단순한 봉급생활자의 타성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의 전환을 통하여 모두가 동반자라는 사고와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이러한 문제는 극복되리라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원건설은 모든 가족이 하나의 동반자라는 의식이 보다 강한 진보적인 기업입니다. 능력있고 미래가 있는 젊은이를 신입사원이 아닌 동반자로서 만나고 싶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미래가 있는 유원에서 동반자로서 만남시다.

'92년도 대졸 신입사원 모집

1. 모집부문·인원 및 자격	2. 전형방법	5. 기타											
<table border="1"> <tr> <th>부문</th> <th>해당학과</th> <th>인원</th> <th>응시 자격</th> </tr> <tr> <td rowspan="2">인문계</td> <td>법정, 상정, 어문학 및 인문사회계열</td> <td>00명</td> <td>1964. 1. 1. 이후 출생자로서 병역 또는 면제사 · 해외여행 결사사유가 없었거나 · 4년제 경구대학 해당학과 전공자로서 1992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td> </tr> <tr> <td>이공계</td> <td>00명</td> <td>건축, 토목직은 1급기사자격 소지자 우대 · 안전관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td> </tr> </table>	부문	해당학과	인원	응시 자격	인문계	법정, 상정, 어문학 및 인문사회계열	00명	1964. 1. 1. 이후 출생자로서 병역 또는 면제사 · 해외여행 결사사유가 없었거나 · 4년제 경구대학 해당학과 전공자로서 1992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	이공계	00명	건축, 토목직은 1급기사자격 소지자 우대 · 안전관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p>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p> <p>3. 출석서류 가. 입사지원서(당사 소정양식).....1봉 나. 대학졸업 성적증명서.....1봉 다. 자격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1봉</p> <p>4.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기간: 1991. 10. 29 (화)~11. 7 (목) 나. 교부 및 접수처: 유원건설(주) 인사팀 (유원빌딩 100-110,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75-95)</p>	<p>가.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공제에 의거 우대한다. 나. 유원건설은 마감일과 도착된 등기우편에 한함이다. 다. 입사 지원서는 당사 1층에서 배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기타 상세한 것은 총무부 인사담당에게 문의하십시오. (756-9821, 9841 · 교번 310, 313)</p>
부문	해당학과	인원	응시 자격										
인문계	법정, 상정, 어문학 및 인문사회계열	00명	1964. 1. 1. 이후 출생자로서 병역 또는 면제사 · 해외여행 결사사유가 없었거나 · 4년제 경구대학 해당학과 전공자로서 1992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										
	이공계	00명	건축, 토목직은 1급기사자격 소지자 우대 · 안전관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유원그룹 주요 사업분야: 종합건설, 무역업, 합판·하드보드, 파티클보드제조업, 원목개발사업, 관광개발업,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업, 주차관리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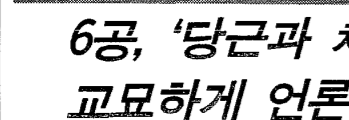


특별좌담 / 한국언론의 어제와 오늘

언론매체는 권력·자본에 충실한 앵무새

▲사회=그동안 한국언론은 권력과 결탁하여 '권언유착'의 형태로 면면히 이어져 오늘날까지도 국민의 올바른 눈과 귀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욱이 지난 9월6일에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김중배씨가 사직하면서 남긴 '독재권력보다 더 원천적인 도전세력은 자본'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어느때 보다 한국언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재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자리에서는 유신독재 시대와 5. 6공을 겪어온 한국언론의 흐름과 92, 93년 권력재편기를 맞



정 동 익

6공, '당근과 채찍'정책으로 교묘하게 언론통제

이하여 한국언론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유익한 대화가 오고 가길 기대합니다.

▲정동익=먼저 5공과 6공의 언론통제방식을 비교해 본다면 적어도 의견상으로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신시대는 물론 5공 때만 해도 기사검열, 보도지침, 기자연행 등 강압적으로 언론을 통제했었는데 6공에 들어서는 언론사상 총부의 주요인사의 통제와 소위 '당근과 채찍'이라 불리는 결과속이 다른 교묘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율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언론조직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죠.

▲강성주=언론 자율화의 조지에 따라 한때 언론종사자들간에 좋은 방송을 하려는 움직임은 활발 했지만 기자들을 해고하고 구속하는 언론탄압은 여전했습니다. 가령 KBS의 전 서영훈 사장 축출같은 교묘해진 상층간부 통제는 예전보다 더 심화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일상=70년대만 하더라도 대다수 언론인들은 생활이 어려운데다 언론탄압까지 심해 소외받은 이들의 소리를 대변한다는 보람이 있었던 것에 비해 지금은 봉급, 세급 특혜, 각종 보조금 등이 상류계층의 그것과 같도록 해서 정권이 언

론인들을 안일주의에 빠뜨린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동익=87년 6월항쟁 이후 언론사마다 편집국장 직선제 같은 많은 민주적인 시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신시대와 5공시대부터 잔류해온 권력밀착형의 해마라기성 인사들이 주요 간부직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강성주=사실입니다. 저의 회사를 보더라도 5공때의 특채기자 1백여명이 남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기부, 보안사 등의 권력기관에서 특채된 사람들과 5.18때 광주민중들을 폭도라 불렀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예전엔 권언유착현상을 언론인 개인의 품성 문제로 볼 수 있었지만 요즘엔 단순히 개인차원에서만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론사가 자본력이 강해지면서 전체적인 자본의 논리가 언론에도 그대로 관철되는 데요. 그러면 권력과 자본과 언론의 결합인 '언론재벌'의 탄생과 현황에 대해 말씀

권력재편기를 앞두고 날이 갈수록 시대를 역행해가는 한국언론은 이제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국민의 권리' 즉 우리의 참언론을 할유하기 위한 자세와 언론폭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들을 생각해본다. (편집자)

권민 우민화운동으로 문제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김중배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의 발언은 의미깊은 예라 하였습니다.

▲정동익=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자본력 싸움의 양상에 따라 그 생존여부가 결정되고 돈가진자만이 언론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한국화약이, 중앙일보의 삼성그룹이, 국제신문은 대우그룹이 가지고 있고 조선, 동아, 한국일보가 그 자체가 재벌이어서 재벌이 아니면 언론사 운영이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언론재벌은 공익성보다는 자기 기업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전락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권력과의 결합을 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비리사건을 제일 먼저 기사화한 세계일보의 경우 정보와 국제청이 세계일보에 대한 세무사찰 및 압력을 가하여 이후 권력집중이 결정된 것은 현 한국언론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일 뿐더러 한국언론에 있어서 자유란 누구를 위한

을 나눠 주시지요.

▲정동익=언론자본의 생성은 6공이 언론사 등록의 자율화 조치를 취한 것에서부터 비롯되는데요. 5공때 20여개사에 이르던 지면매체가 6공 들어서는 70여개사로 대폭 늘면서 요즘엔 지면 및 자본경쟁의 심화로 재벌이 아니면 언론사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유일상=언론, 자본, 권력, 국민의 네 주체는 서로 독립을 유지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로 언론사 운영비의 90% 이상을 하는 광고비의 확보를 위해 언론 편집이 광고

언론재벌 등장으로 이기주의, 국민 우민화정책 유포

주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실정이나 까요.

지금까지는 주로 권력과 언론이 쉽게 결탁해 왔지만 6공에 들어서는 권력과 언론에 자본이 결합하여 다 언론탄압까지 심해 소외받은 이들의 소리를 대변한다는 보람이 있었던 것에 비해 지금은 봉급, 세급 특혜, 각종 보조금 등이 상류계층의 그것과 같도록 해서 정권이 언

론인들을 안일주의에 빠뜨린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동익=87년 6월항쟁 이후 언론사마다 편집국장 직선제 같은 많은 민주적인 시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신시대와 5공시대부터 잔류해온 권력밀착형의 해마라기성 인사들이 주요 간부직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강성주=사실입니다. 저의 회사를 보더라도 5공때의 특채기자 1백여명이 남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기부, 보안사 등의 권력기관에서 특채된 사람들과 5.18때 광주민중들을 폭도라 불렀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예전엔 권언유착현상을 언론인 개인의 품성 문제로 볼 수 있었지만 요즘엔 단순히 개인차원에서만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론사가 자본력이 강해지면서 전체적인 자본의 논리가 언론에도 그대로 관철되는 데요. 그러면 권력과 자본과 언론의 결합인 '언론재벌'의 탄생과 현황에 대해 말씀

권력재편기를 앞두고 날이 갈수록 시대를 역행해가는 한국언론은 이제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국민의 권리' 즉 우리의 참언론을 할유하기 위한 자세와 언론폭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들을 생각해본다. (편집자)

권민 우민화운동으로 문제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김중배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의 발언은 의미깊은 예라 하였습니다.

▲정동익=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자본력 싸움의 양상에 따라 그 생존여부가 결정되고 돈가진자만이 언론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한국화약이, 중앙일보의 삼성그룹이, 국제신문은 대우그룹이 가지고 있고 조선, 동아, 한국일보가 그 자체가 재벌이어서 재벌이 아니면 언론사 운영이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언론재벌은 공익성보다는 자기 기업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전락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권력과의 결합을 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비리사건을 제일 먼저 기사화한 세계일보의 경우 정보와 국제청이 세계일보에 대한 세무사찰 및 압력을 가하여 이후 권력집중이 결정된 것은 현 한국언론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일 뿐더러 한국언론에 있어서 자유란 누구를 위한



유 일 상

언론재벌 등장으로 이기주의, 국민 우민화정책 유포

주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실정이나 까요.

지금까지는 주로 권력과 언론이 쉽게 결탁해 왔지만 6공에 들어서는 권력과 언론에 자본이 결합하여 다 언론탄압까지 심해 소외받은 이들의 소리를 대변한다는 보람이 있었던 것에 비해 지금은 봉급, 세급 특혜, 각종 보조금 등이 상류계층의 그것과 같도록 해서 정권이 언

론인들을 안일주의에 빠뜨린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동익=87년 6월항쟁 이후 언론사마다 편집국장 직선제 같은 많은 민주적인 시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신시대와 5공시대부터 잔류해온 권력밀착형의 해마라기성 인사들이 주요 간부직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강성주=사실입니다. 저의 회사를 보더라도 5공때의 특채기자 1백여명이 남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기부, 보안사 등의 권력기관에서 특채된 사람들과 5.18때 광주민중들을 폭도라 불렀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예전엔 권언유착현상을 언론인 개인의 품성 문제로 볼 수 있었지만 요즘엔 단순히 개인차원에서만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론사가 자본력이 강해지면서 전체적인 자본의 논리가 언론에도 그대로 관철되는 데요. 그러면 권력과 자본과 언론의 결합인 '언론재벌'의 탄생과 현황에 대해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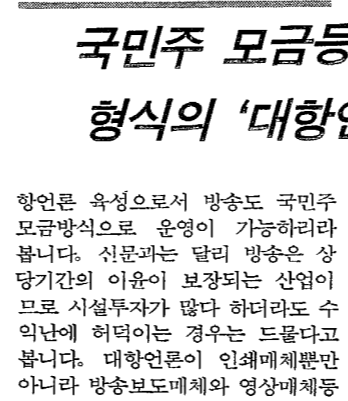
권력재편기를 앞두고 날이 갈수록 시대를 역행해가는 한국언론은 이제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국민의 권리' 즉 우리의 참언론을 할유하기 위한 자세와 언론폭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들을 생각해본다. (편집자)

권민 우민화운동으로 문제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김중배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의 발언은 의미깊은 예라 하였습니다.

▲정동익=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자본력 싸움의 양상에 따라 그 생존여부가 결정되고 돈가진자만이 언론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한국화약이, 중앙일보의 삼성그룹이, 국제신문은 대우그룹이 가지고 있고 조선, 동아, 한국일보가 그 자체가 재벌이어서 재벌이 아니면 언론사 운영이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언론재벌은 공익성보다는 자기 기업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전락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권력과의 결합을 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비리사건을 제일 먼저 기사화한 세계일보의 경우 정보와 국제청이 세계일보에 대한 세무사찰 및 압력을 가하여 이후 권력집중이 결정된 것은 현 한국언론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일 뿐더러 한국언론에 있어서 자유란 누구를 위한



정 동 익

언론재벌 등장으로 이기주의, 국민 우민화정책 유포

주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실정이나 까요.

지금까지는 주로 권력과 언론이 쉽게 결탁해 왔지만 6공에 들어서는 권력과 언론에 자본이 결합하여 다 언론탄압까지 심해 소외받은 이들의 소리를 대변한다는 보람이 있었던 것에 비해 지금은 봉급, 세급 특혜, 각종 보조금 등이 상류계층의 그것과 같도록 해서 정권이 언

론인들을 안일주의에 빠뜨린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동익=87년 6월항쟁 이후 언론사마다 편집국장 직선제 같은 많은 민주적인 시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신시대와 5공시대부터 잔류해온 권력밀착형의 해마라기성 인사들이 주요 간부직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강성주=사실입니다. 저의 회사를 보더라도 5공때의 특채기자 1백여명이 남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기부, 보안사 등의 권력기관에서 특채된 사람들과 5.18때 광주민중들을 폭도라 불렀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예전엔 권언유착현상을 언론인 개인의 품성 문제로 볼 수 있었지만 요즘엔 단순히 개인차원에서만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론사가 자본력이 강해지면서 전체적인 자본의 논리가 언론에도 그대로 관철되는 데요. 그러면 권력과 자본과 언론의 결합인 '언론재벌'의 탄생과 현황에 대해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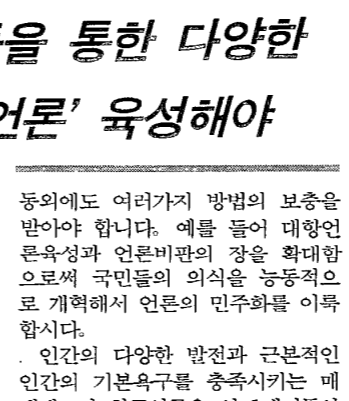
권력재편기를 앞두고 날이 갈수록 시대를 역행해가는 한국언론은 이제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국민의 권리' 즉 우리의 참언론을 할유하기 위한 자세와 언론폭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들을 생각해본다. (편집자)

권민 우민화운동으로 문제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김중배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의 발언은 의미깊은 예라 하였습니다.

▲정동익=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자본력 싸움의 양상에 따라 그 생존여부가 결정되고 돈가진자만이 언론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한국화약이, 중앙일보의 삼성그룹이, 국제신문은 대우그룹이 가지고 있고 조선, 동아, 한국일보가 그 자체가 재벌이어서 재벌이 아니면 언론사 운영이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언론재벌은 공익성보다는 자기 기업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전락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권력과의 결합을 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비리사건을 제일 먼저 기사화한 세계일보의 경우 정보와 국제청이 세계일보에 대한 세무사찰 및 압력을 가하여 이후 권력집중이 결정된 것은 현 한국언론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일 뿐더러 한국언론에 있어서 자유란 누구를 위한



정 동 익

언론재벌 등장으로 이기주의, 국민 우민화정책 유포

주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실정이나 까요.

지금까지는 주로 권력과 언론이 쉽게 결탁해 왔지만 6공에 들어서는 권력과 언론에 자본이 결합하여 다 언론탄압까지 심해 소외받은 이들의 소리를 대변한다는 보람이 있었던 것에 비해 지금은 봉급, 세급 특혜, 각종 보조금 등이 상류계층의 그것과 같도록 해서 정권이 언

◇ 최루탄, 얼마나 치명적인가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는 이,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이,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보이던 제일 먼저 눈물나게 반겨주는(?) 것이 최루탄이다.

민중을 탄압해야만 하는 현정권에겐 없어서는 안될 무기, 최루탄은 1879년 독일의 칼 그레베가 합성에 성공하여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당시 최루탄은 CN이라는 군사암호명을 갖게 되었고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미국에서 진압용 무기로 폭인 인권운동의 탄압에 큰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CN가스에 대한 시위대의

“CS가스외에 유해성분 있다” 폐근육경련에서 질식사까지 유발

임상학적 연구 선결돼야

면역으로 진압의 효과가 감소되자 영국의 국방연구소인 "포론연구소"에서는 보다 강력한 최루가스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것이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는 CS가스이다. 이 CS가스는 영국의 식민지 가나의 민중해방운동을 분쇄하는 데 사용되었고 베트남에서는 미군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 베트남 민중을 질식, 사망케 하는데 사용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명에서 "민주화"를 외치던 시위대의 집회장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냈다.

한국사회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최루탄은 보보사파탄(KM25), 직격탄(SY-44 KP탄), 지탄탄(다연발탄), 페르포로 나뉘어 있는데, 당국에서는 최루탄의 성분은 CS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인권"을 위한 의사들이라는 의학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용되는 최루탄의 주성분이 CS가스라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그 밖의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안다"고 전하면서 "이 보고서를 시발로 한국에서 사용되는 최루탄의 임상학적, 역학적, 실험적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의 최루탄피해는 가스에 의한 것과 파편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최루탄가스의 주성분으로 알려진 CS가스는 2-클로로벤질리덴 발로노리틸로 0.005mm의 극소농도에서도 눈에 심한 고통을 주며 0.1mm정도면 눈물과 함께 심신부력중에 빠지게 한

독성이 가장 강한 것은 민중을 향해 쏟아지는 폭동진압용이라는 게 우리에게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또하나의 피해가 최루탄의 파편에 의한 것인데, 87년 이한열군을 숨지게 한 원인이 최루탄이었음을 우리는 아직도 경찰청에서 기억하고 있다. 이후에도 현정권의 무차별한 최루탄사용으로 많은 청년학생들이 다치고 불구가 되어 갔다. 최루탄의 직접피해에 의한 피해가 늘어난다는 데 정부도 경찰청에서는 격려 최루탄 발사시의 구조상 수명발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올해 6월 전남대 총학생회에서 실시한 결과 수명발사는 가능하며 10m거리에서 베니어판에 구멍을 낼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최루탄의 위생에도 불구하고 최루탄의 사용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올해에만도 8월말까지 사용된 최루탄은 22만여발로 57억원에 해당된다는 것이 경찰청의 발표다. 이는 90년 같은 기간 사용량의 40%가 증가한 것이다.

"최루탄 소비량은 민중탄압과 정비례한다"

우리는 현정권의 무차별적인 최루탄사용을 보며 이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찬 옥

(한국 반핵·반공해평화 연구소)

동 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의 보충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항인론용성과 언론비판의 장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식을 능동적으로 개혁해서 언론의 민주화를 이룩합니다.

인간의 다양한 발전과 근본적인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매개체로서 한국언론은 약 1세기동안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민주화 없이는 그 사회의 민주화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한국사회의 중대한 모순들중 하나인 한국언론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변혁의 주체로서는 일이 다가오는 92,93년 권력재편기를 맞이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일입니다.

▲사회=장시간 동안 대안하 수 고쳐보았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정리=송태영 기자)

新 入 社 員 募 集

浦項製鐵은 다음世代之幸福과 다음世紀之繁榮을 約束하는 企業입니다.
浦項製鐵의 無限한 可能性과 함께 成長할 人材를 널리 찾습니다.

1. 募集分野 및 應試資格

募集分野	人員	應試資格
技 術 系	250名	'64.1.1 이후 출생자 단, 碩士는 '62.1.1 이후 출생자 4년제 正規大學(院) 募集分野 該當學科 또는 關聯學科 卒業者 및 '92.2월 卒業豫定者
事務系	150名	兵役畢 또는 免除者 ※ 語學專攻者는 事務系分野 應試可能

3. 1次 銓衡(筆記試驗)日時 및 場所

- 日時: '91.11.3(日), 午前 9時
- 場所: 弘益大學校(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소재)

4. 提出書類

- 入社志願書(當社 所定樣式).....1部

5. 志願書交付 및 接受處

交付處	接受處
• 各大學 學生處 또는 就業輔導室 • 서울: 서울事務所 (중구 을지로1가 금세기빌딩, 서울시청 좌측 소재) • 포항: 本社 1層 室內室 • 광양: 光陽製鐵所 正門室內室	(790-785) 浦項綜合製鐵(株) 人力管理課 人力課

6. 接受期間 및 接受方法

- 接受期間: '91.10.10(木)~10.23(水)
- 接受方法: 郵便接受

7. 其他事項

- 國家報勳對象者는 關係法令에 의거 優待함 (該當者는 所定의 證明書를 願書接受時 提出하여야 함)
- 碩士學位者는 該當 經歷認定함
- 軍 服務중인 者는 '91.12.31 以前 轉役者에 限하여 志願可能함
- 書類提出은 郵便으로 하되 마감일 到着分에 限함
- 其他 詳細한 事項은 接受處로 問議바람 (電話: 0562-70-0693~0696)

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

백상예술제전

“죽은자들 녀 다시 살아”

오늘개막...학술강연-체육-문예행사등 다채

'91백상예술제전이 제23대 총학생회장으로 91년 일상사업의 총괄 및 동아인의 하나된 단결과 92·93년 대격돌기를 향한 힘찬 전진을 목적으로 오늘(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교내일원에서 개최된다.

“죽은자들의 녀 다시 살아”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백상예술제전은 체육, 학술강연, 문예행사 등 다양한 행사로 이루어져 있다.

체육경기 일정을 보면 지난 7, 8일 양일간 만해광장과 대운동장에서 각 구기종목 예선경기가 치러졌으며 첫째날(9일)에 축구, 배구, 농구, 족구, 발구 경기의 8경전이 열린다.

둘째날(10일)은 구기종목 4강전과 함께 전통민속경기인 씨름대회 단체전 및 개인종목 예선-결승이 오전 11시부터 만해광장 모래밭에서 열려 힘을 겨루게 된다.

또한 마지막날(11일)에는 각 경기 종목별 결승전이 진행되고 대운동장을 출발하는 마라톤이 개최되고 '동국인 가족 한마당'으로 4백m 릴레이가 과수, 직원, 남·여학생 4명이 한조를 이뤄 진행된다.

한편 학술행사로 '민중동국 새날학교' 두 번째 강연을 '92·3년 권력의 상과 그 경로, 그리고 청년학생의 임무'라는 주제로 이인영(전대협 제1기 의장·전 민선 정책위원)씨가

강사로 나와 오후 6시부터 증강당에서 진행된다.

또 문예행사 기획행사로 지난 8일 학원관(소강당)에서 음악예일꾼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둘째날(10일) 전통혼례식이 불상과 주위에서 치러지고 '생활문화한마당'으로 우리말 뽀빠지 선보이기, 우리 먹거리, 입지리 정터와 정대춘씨 초청 노래공연이 오후 6시부터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마지막날(11일)은 일어일본학과 김재국과 동국문화회 문선영, 민가영, 윤종재 등이 다량하게 출연한다. 그리고 마지막 행사인 폐막제에서는 안치환씨가 우정준하에 공연을 가

지는 것은 물론 백상예술제전은 전체행사를 모두 마친다.

DID 전화 개통 14일 자정 기해

교원권을 거치지 않고 학외에서 직접 학내 각 자치기구에

이로써 기존의 구내전화번호도 오는 14일을 기해 전면교체되며 지금까지의 직통전화번호 제외된 새로운 구내전화번호로 260국을 사용하는 학외에서 학내로의 직통전화 가능하다.

오는 24·25일 총대 선거 17일까지 후보자 등록마감

제24대 총대의원회 정·부의 장 선거가 오는 24·25일 양일간 실시된다.

총대 중앙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회의를 갖고 제24대 총대의원회 정·부의 장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의 직접통화가 가능한 DID의 전화가 오는 14일 개통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서울시 을지전국과 학교간의 전화회선 설치가 완공됨에 따라 오는 11일 학내 전화선로 공사와 오는 13일 학내전화 교환장비정비작업을 거쳐 오는 14일 자정을 기해 DID식 전화가 개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의 구내전화번호도 오는 14일을 기해 전면교체되며 지금까지의 직통전화번호 제외된 새로운 구내전화번호로 260국을 사용하는 학외에서 학내로의 직통전화 가능하다.

그러나 무분별한 시외통화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자는 기존의 시외통화통제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4·25일 총대 선거 17일까지 후보자 등록마감

제24대 총대의원회 정·부의 장 선거가 오는 24·25일 양일간 실시된다.

총대 중앙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회의를 갖고 제24대 총대의원회 정·부의 장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이로써 기존의 구내전화번호도 오는 14일을 기해 전면교체되며 지금까지의 직통전화번호 제외된 새로운 구내전화번호로 260국을 사용하는 학외에서 학내로의 직통전화 가능하다.

“동국인의 드높은 기상 보여줄터” -에베레스트 등반대장 박영석군을 만나

인터뷰

30년 역사의 동국산악회가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8,848m) 등정을 위해 오는 28일 내발 행차로 떠난다.

지난 87년 한국의 히영오씨의 등반성공을 비롯해 동계시즌에서는 세계에서 단 두번밖에 성공하지 못한 등정을 하게 된다.

이에 세계 최초의 대학단 일명으로서 에베레스트산 등정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는 등반대장 박영석(체교90출) 등원을 만나보았다.

“지금까지의 준비과정은... 21일 89,900 등계시즌에 히말라야 탐방대를 세계최초 등정한 뒤에 재학생 4명을 포함한 10명의 대원들로 팀을 구성하고 설악산등지로

매달 한번씩 등반을 통해 팀원배양 등 꾸준한 훈련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등반일정은... 오는 28일 본대가 출발해서 내팔 캠프 히말라야에 도착, 11월 20일경에 베이즈 캠프를 구축하고 얼음장도 고도순응을 한 뒤 12월 1일부터는 등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등반경비에 필요한 1억여 원의 기금마련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는데 동국산악회 OB회원들의 도움과 산악사들에게 의뢰하기는 너무 벅찬 일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동국의 명예를 위한 걸이만큼 학교당국과 총동창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세계 최연소 등반대장으로 올 봄 등반에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아는데 계속 산을 오르는 이유가 있다면... =자신 산을 안가려해도 자꾸만 환산이 어려워서 다시 가게 됩니다. 이번 등반이 동국인의 강한 패기를 보여 드려겠습니다.”

12월 20일경 정상정복이 이루어 지리라 봅니다.

“이번 등반에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짧은 시간에 적은 인원으로 정상정복을 노리는 ‘알파

인 방식’의 등정과 세계최초로 남쪽측으로 길을 잡아 등반하고 대원들의 컨디션만 좋다면 부산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등반을 준비하는 데 어려운 점은... =등반경비에 필요한 1억여 원의 기금마련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는데 동국산악회 OB회원들의 도움과 산악사들에게 의뢰하기는 너무 벅찬 일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동국의 명예를 위한 걸이만큼 학교당국과 총동창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세계 최연소 등반대장으로 올 봄 등반에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아는데 계속 산을 오르는 이유가 있다면... =자신 산을 안가려해도 자꾸만 환산이 어려워서 다시 가게 됩니다. 이번 등반이 동국인의 강한 패기를 보여 드려겠습니다.”

12월 20일경 정상정복이 이루어 지리라 봅니다.

“이번 등반에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짧은 시간에 적은 인원으로 정상정복을 노리는 ‘알파

인 방식’의 등정과 세계최초로 남쪽측으로 길을 잡아 등반하고 대원들의 컨디션만 좋다면 부산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과대 학술행사 활발

두리제·능금제등 18일까지 열려

제4대 법과대 학생회(회장=강우식·법학4)에서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증강당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법대의 한마당인 '제4회 법학두리제'를 개최한다.

행사일정을 보면 노래한마당, 문화공연을 증강당에서 16일에 실시하고 14, 15일의 체육경기 일정을 거쳐 16일 오후 4시 각종목 결승전을 치른다.

또한 17일에는 동국관(L동) 대강의실에서 사법학회, 공법학회, 민중법학회등 법대산하 3개회에서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학술심포지엄을 가진다.

특히 18일 오후 3시 증강당에서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제작한 '제16회 형사모의 재판'을 '주먹조항 사기분양'이라는 주제아래 주먹조항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형사회의 문제점으로

로 등장한 부동산투기를 이용한 위법행위에 관한 법적인 문제를 다루게 된다.

사과대학생회(회장=윤오순·정외4)는 오는 16·17 양일간 '나, 너, 사회과학대, 그리고 전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4회 능금잔치를 학생회 1년을 결산하는 자리로 마련한다.

이번 능금잔치는 파란 편자 해소 사과대와 각 과의 낮은 협력을 극복해 92·3년 권력계편기에 대한 강요한 투쟁결의를 하는 장으로써 의의를 가진다.

세부일정을 보면 오는 16·17일 양일간 체육대회로 축구, 배구, 탁구, 8백m 릴레이, 단체 줄넘기 경기가 있으며 단체 줄넘기 경기가 있으며 단체 줄넘기 경기가 있으며 단체 줄넘기 경기가 있다.

실시되고 등이 실시된다.

한편, 예술대학(학외3)은 일채영 연(연)은 예대단일진용을 위와 예대인의 하나됨을 위한 '예대체육대회'를 지난 4일 대운동장에서 개최했다.

정치학 논문 발표회

본교 정치학연구회(회장=김경진·정외3)는 오는 17일 오후 4시 30분 동국관(L101) 강의실에서 '한국전쟁, 왜 일어났는가'라는 주제로 '97회 정치학연구회 논문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남북한 정치에서 살펴본 한국전쟁의 원인' '한국전쟁의 전개과정과 한미관계'라는 주제로 정치학 연구회 회원 김민성(정외2), 김경진(정외3), 정영진(정외3) 등 3명이 각각 발표하게 된다.

안보연구소 통일 세미나

'탈냉전시대 남북한 관계...' 주제로

강령 및 토론으로 전개된다.

생활문화 한마당

'91민중생활문화한마당'이 어제(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교내일원에서 학생복지위원회(학복위) 주최로 열린다.

이 행사는 지난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지역 학생복지위원회연합(서복연) 남부지구연합 차원에서 열리는 것으로 생활문화, 정서, 생활문화공연 및 강연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총여' 대표 김혜경양

총대의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제7대 총여학생회 해체 이후 '여학생 자치기구 활성화를 위한 특별기구' 대표에 야간강과 총여학생회장 김혜경(야간공3)을 인준했다.

남기원군 부상

가두시위중 방패맞아

지난 9월 28일 한양대에서 있었던 '고 한국원전세 살인규탄과 공안통치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치고 가두로 나가던 남기원(정외1)군이 백패달이 휘두른 방패와 관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가두시위도중 남군은 백패달이 휘두른 방패와 관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가두시위도중 남군은 백패달이 휘두른 방패와 관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해설 김한주 전교수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학교법인 동국학원의 복무규정은 위반해 지난 88년 7월 1일자로 해임처분 받은 행정학과 김한주교수가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학교당국과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42부(재판장 조중환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3일 김교수가 동국학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

무치의 한 관계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해임처분 당시 김교수는 8년간 뚜렷한 이유없이 학교를 떠나 휴직상태에 있으면서 정

판에 명시된 교원복무규정을 위반했으며 퇴직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중앙학생회과류측은 “교수가 학문연구를 목적으로

10월 1일부터 일신상의 사정과정기대학 학정취임등을 이유로 지난 88년 7월 1일자로 해임처분됨에 따라 휴직기간중 총장의 허가없이 경기대학의 학장에 취임하여 재직함으로써 “교직원”은 총장의 허가없이 임지를 떠나거나 타사업에 종사 또는 관여하지 못한다”는 학교법원의 복무규정(제6조)을 위반했

학교당국 15일 이전 고법항소 준비중

“법이전에 도덕성 의심스럽다” 지적도

송에서 '동국학원이 88년 7월 1일자로 해임한 것은 무효'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행사는 지난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지역 학생복지위원회연합(서복연) 남부지구연합 차원에서 열리는 것으로 생활문화, 정서, 생활문화공연 및 강연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학과소식

블로그학과

상상중원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찾집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화관 2층 보리수에서 시작.

독어독문학과

브레히트와 원어연극 'Die Ausnahme und die Regel'(예외와 규칙) 공연은 오는 10, 11일 양일간 4시, 6시 30분 극예술연구회 소극장(학생회관 5층)에서 공연한다.

로 본임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직과 명예에만 급급한 김교수의 경우, 88년 학원 자주화투쟁 당시 학생들에게 이용교수로 물러 학교에서 추방되었는데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한동문은 “이문제는 법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도덕성이 의심스럽다”고 불쾌해했다.

이번 사건경위를 살펴보면 김교수는 지난 77년 5월 17일자로 당시 본교 법정책학 행정학과 교수로 채용된 후 83년

다. 하지만 서울민사지법측은 김교수가 학교법원의 복무규정을 어긴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을 근거로 한 법정은 허용될 수 없고 복무규정을 어긴 행위가 학교법원의 정관 제58조에 명시한 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학교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당국은 오는 15일이전까지 항소제기와 함께 이에 대비한 김교수에 대한 면직할 검토를 진행중이다.

(조인환 기자)

모범생(?) 자기홍보... 한밤의 무법자들... 미숙한 정치이념(?)... 면학분위기 조성한다며 서점이 은행자리에 밀려서야

무서운지, 이리다간 우리 학교도 규율대를 고용해야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네요... 미숙한 정치이념(?)... 면학분위기 조성한다며 서점이 은행자리에 밀려서야

학과소식... 블로그학과... 독어독문학과... 1. 모집부문 인원 및 자격... 2. 전형방법... 3.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4. 제출서류...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젊은 그대여, 세계를 품으십시오... 대졸 신입사원 모집... 현대인력관리위원회

서울지역학생복지위원회합
남부지구 연합 주최
'91 민족생활문화화마당

"이웃 입어보세요, 수정과 마실래요?"



◇민중동아어머니회에서는 생활문화장터기간중 학생들에게 우리차와 떡등을 준비해 전통 먹거리 마당을 마련하고 있다.

사대주의, 개인이기주의, 소비향락주의 문화를 극복하고 우리의 문화를 찾고자 하는 '91 민족생활문화화마당'이 서울지역학생복지위원회연합 남부지구연합 차원에서 열리고 있다.

연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지난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만해광장, 불상주변동 교내일원에서 백상제전과 맞물려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내하여, 전통 다례와 떡간지에 민중동아어머니회가 함께 참여해 먹거리마당을 마련한다. 이 먹거리장터는 라면, 청량음료 등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 등 외래식생활문화에 모르는 사이 익숙해져 가는 우리에게 방부제, 인공감미료 첨가와 포장등 가공식품의 위해성을 알려내며 우리의 것을 찾도록 하는데 의미를 둔다.

나들이편을 형성하면서 겸소하고 건강한 민족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 연이어 정태춘씨 진행으로 신명나는 우리가라부르기가 열린다. 이들 전체행사 가운데 특이할만한 것이 바로 전통혼례이다. 몇십만원씩 들어 웨딩드레스를 빌려입는 등 남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서구식 결혼식의 기만성을 알려내고 생산자로서의 자부심, 가난한 정경협에서 출발하는 우리의 전통혼례식을 선보인다.

또 서로간에 필요한 물건을 바꿀 수 있도록 장터기간동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다량관 앞에 물물교환장터가 서며, 민족의 얼이 담긴 우리옷과 생활문화용품, 참교육을 꿈, 무궁해세대를 전시판대한다.

이러한 일회성을 극복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정서에 맞는 생활문화가 우리 가슴속에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상설적인 장터 및 강연회 등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민선

545돌 한글날 기념
제2회 국제 한국어 교육자대회
제545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글학회는 제2회 국제 한국어 교육자대회를 9일, 10일 양일간 갖는다.

로 하여 총17명의 국내외 대학교수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는데, 대회 첫날인 9일에는 오후1시~6시, 10일에는 오전 10시~오후6시까지 두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교재편찬방안으로써 언어교육 자원뿐 아닌 사회문화적 지식을 소개하는데도 중점을 두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내용으로 편찬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다. * 일시: 오는 31일까지(월요일 휴관)
* 화·수·목 오후7시30분 금·토·일 오후4시30분, 7시30분.
* 장소: 대학로극장 * 문의: 764-6052

만화를 이어 받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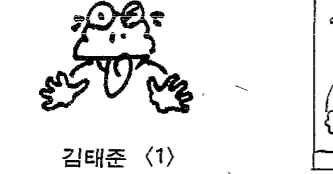
항상 나름대로 만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엔 만화를 이어 받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다.

을 솔직하고 알기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매력에 있는 장르이다. 최근에 간행되고 있는 만화를 보면 대체적으로 작품수준이 높아지고 내용전달도 다양해져서 더욱 흥미를 끌게 한다.

김삼갑 이야기 '시인' 공연
극단 우리극장은 이문열의 소설 '시인'을 공연한다.

'적정관리'는 연극사에 등장하는 여러 예술가들의 파란만장하고 격정에 찬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 일제의 식민 지배와 분단으로 인한 역사의 비극이 예술가들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그려내어 격동의 세월속에 사라져간 평대들의 생애와 예술이 오늘 우리 연극사에 거대한 뿌리를 존재하고 있음을 재조명한 작품이다.

찰개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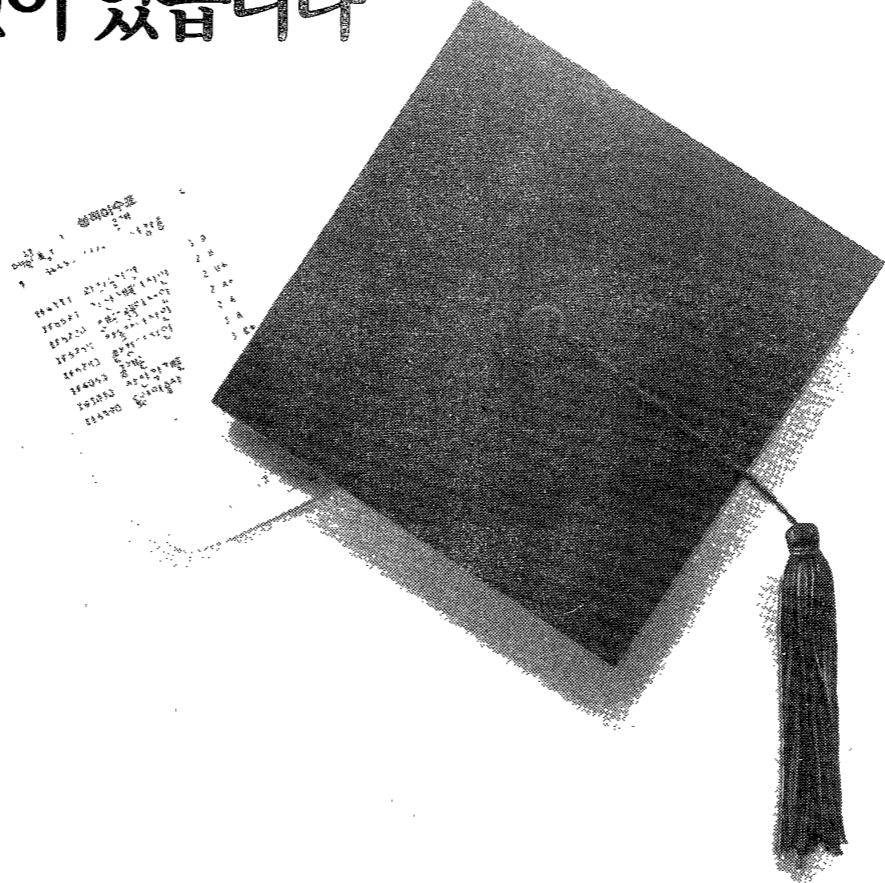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해태

"학점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존중의 기업 해태가 '된사람'을 찾습니다.

- 동료와 서로 도와 일하며,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겠는가?
- 맡은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처리해 낼 수 있겠는가?
- 해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의 조건입니다. 해태는 학점이 우수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만, 사람 됨됨이가 반듯한 '된사람'은 더욱 귀하게 여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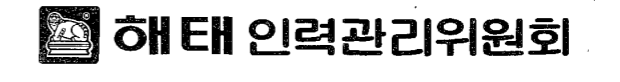


신입사원 모집

응시지군	모집회사	전 공 학 과	모집인원	응 시 자 격
부 역	해태상사(주)	기초공학	○○○명	1. 정규 4년제 대학 해당분야 전공자로서 1992년 2월 학사 취득 예정자 및 기획특약
유 통	해태유동(주)	-		2. 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
광 고	(주)코 래 드	디자인관련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태음료(주)	기계, 식품공학		
식 품	해태식품(주)	전기, 전자계산, 식품공학		
	(주)델 리	응용미술학, 식품공학		

5. 접수처
해태그룹 종합조정실(서울) 예서면 접수(문의전화: 716-8811, 717-5765)

6. 기 타
가 국가보훈대상자는 증명서류 첨부시 관계법에 의해 우대할 나. 응시원서는 응시지군에 직접 접수처에 한함 (우편응시원서는 접수처 아니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바람.



해태 인력관리위원회